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변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준수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교만이 결국에는 사울 자신을 실패한 왕이 되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3장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이 모였고 또한 믹마스에 진을 쳤다고 하니 이스라엘 한 가운데까지 진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번제를 드린 이유를 물어 봅니다. 조금 전에 읽어 드린 11절 말씀은 사무엘의 이 질문에 대한 사울의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내용을 보면 모두가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울이 거짓으로 답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사울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는데 블레셋 군사들은 점점 예루살렘 가까이 접근하여 바로 코 앞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먹고 하나 둘씩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속이 타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12절에 사울이 언급한대로 "부득이" 번제를 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의 판단은 사실을 바탕으로 납득할 만한 이성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의 행동에 대해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엘은 이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는 말을 사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대신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다"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기다리라'는 명령이

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레가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바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기다리라는 것이었는데 이레 동안 기다리던 사울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더는 기다리지 않고 그 기다리라는 명령을 자신이 드리는 번제로 대치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사울은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레를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사울에게 죄가 되는 것일까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명분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만큼 기다렸고 자기 자신도 할 만큼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사울이 잊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사울 자신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하는 말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사울왕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의 노릇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하나의 방편으로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신대로 13장에서 사울이 번제를 드렸지마는 14장35절에도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사울이 왕이 된지 최소한 2년이 더 지난 시점이라고 보면 사울의 그 동안의 신앙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장에서 드린 번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사로써, 우리는 사울이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자세는 어제 말씀 드린 대로 자신의 교만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만으로 가득한 사울의 이러한 행실은 15장 말씀에도 그대로 드러나

고 있습니다. 15장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의 말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15장9절은 '진멸하기를 즐겨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돌아온 사울은 자신의 공적을 나타내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죄악은 다윗의 행실과 비교하면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죄악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시145:1)"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과는 항상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이렇게 범죄하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숫양의 기름을 드린 것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면죄부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마도 성경을 읽을 때 사울에게서 내 자신의 모습을 찾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울이 가는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사울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잠16:18)"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죄악의 근본이 교만에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도리어 겸손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잠18:12)" 또한 베드로전서 5장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 분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분의 말씀 또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이나 환경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된다고 하여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 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